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것들

The precious things that we should keep

정익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었다.

간 김에 바깥마당 한 쪽에 있는 50m² 남짓한 텃밭에 시금치, 아욱, 쑥갓 등 각종 채소 씨앗을 심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앗의 촉감이 묘한 전율로 손끝에 전해 온다. 문득, 이 강산에 나고 자란 우리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계적으로 이름 난 미국의 금잔디도 알고 보면 1890년 우리의 잔디 씨를 반출하여 개량한 끝에 만든 것이고, 흰 백합은 네덜란드가 우리의 '하늘말나리' 꽃을 가져가서 개량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얇은뱅이 밀'은 일본으로 유출되어 '농립 10호'로 개량되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 '소라노'를 탄생시켰다. 지금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의 90% 이상이 우리 '얇은뱅이 밀'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토종 종자가 유출되어 우리는 그들이 개량하여 등록한 농산물을 역수입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충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종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당시 서울종묘, 흥농종묘 등 국내 5대 종묘회사가 몬산토 등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 이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단절되어 종자 산업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가 미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토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얼마 전까지 계속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종자 산업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규제, 관리 중심에서 진흥과 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건축 설계, 감리를 규제해소의 틀에서 보는 시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건축 설계, 감리는 국가전문 자격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식서비스산업이지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자본의 들러리 내지는 지배를 받을 영역이 아니다. 특히 자유로운 창의력이 요구되는 건축설계를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규격화된 틀 속에 가두고 있다. 과거 십 수 년 전에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건축사를 무더기로 배출하여 건축설계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건축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편에서는 건축문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건축사 고유의 건축 설계, 감리 영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도 침해당했다. 마치 토종 종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듯이.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감리도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영역이다. 농부는 굶을지언정 종자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김소연 시인의 저서 「마음 사전」에서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고찰을 옮겨 본다.

'소중한 존재는 그 자체가 궁극이지만, 중요한 존재는 궁극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돈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소중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어느 샌가 소중했던 당신이 중요한 당신으로 변해 가고 있다. (중략) 우리는 중요한 것들의 하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경우가 많다.'

건축에 있어서 소중한 영역이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않은지 국토해양부의 세심하고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